

지역 저축銀 6곳 자산건전성 '맑음'

광주·전남지역에 본점을 둔 6개 저축은행들의 올 상반기 경영지표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스마트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에 따르면 오는 30일 올 상반기 경영공시 기한을 앞두고 경영지표 중 가장 주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실시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진단을 통과했고, 잇단 증자로 자산 건전성을 강화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지역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경영공시를 한 스마트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8.32%로 공시했다. '우량회사'의 기준이 될 10%를 넘긴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인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 대우에이텍이 지역의 탄탄한 중

센트럴·동양·스마트 등 BIS 8% 이상

경영진단 전국 85곳 중 40곳 10% 상회

견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인수 후 활발한 영업활동을 지속해 흑자전환까지 예상된다.

아직 공시를 하지 않은 다른 저축은행도 대부분 8%대 BIS 비율을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은 센트럴저축은행 25.29%, 대한 9.02%, 스마트 8.32% (2011년 6월 말 기준), 동양 8.19%, 무등 6.95%(지난 1월 증자 후 8.

41%), 골든브릿지 5.97%였다. 센트럴은 여전히 10%대 이상의 BIS 비율로 '우량회사'로 인정받을 전망이다이며 나머지 은행들도 '자산 건전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들이 증자와 함께 경영지표에도 안전성을 기하고 있어 더이상 '잡음'은 없을 것"이라며 "BIS 비율이 10% 미만이라도 대주주가 튼튼한 지역저축은행들이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하는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분석,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넘는 '우량저축은행'은 40여 곳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BIS 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넘었지만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30여 곳으로 분석되며 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안정기금을 신청, 자본확충을 할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 공시를 두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법인이나 새로 수익금을 찾아낸 일부 저축은행은 경영진단 때보다 BIS 비율이 다소 상승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들깨 꽃송이 부각

들깨꽃이 지고 있다. 꽃이 져야 들깨가 맺힐 테니 이제 여름 것들 기다릴 일만 남았는데 괜히 조바심치며 바꾸니 들고 밭을 들랑거린다.

사실 게으른 농사꾼에게 들깨만한 효자 품목이 없다. 여름 내내 삼이파리로, 또 간장 절임으로 만드느라 얼마나 따 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늘 새 잎을 만들어 내고 단 한 번 병치레 없이 저절로 씨가 어루니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 뿐만 아니다. 이맘때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맛 한 가지를 선물하는데 바로 들깨 꽃송이 부각이다. 꽃이 막 지고 씨알이 여름 시기에 밀가루나 찹쌀 풀 입혀 부각을 만드는데 겨울철 고소한 별미 한 가지가 탄생한다. 만드는 법이 같은 것 같아도 들어 보면 여러 가지인데 사실 그 원리와 기본만 알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을 것 같다.

준비물은 들깨 송이와 밀가루나 찹쌀가루와 소금.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낸 꽃송이를 씻어 물기를 빼두는데 주의할 점은 씨알이 빠지지 않도록 살살 닦아야 한다는 것. 흐르는 세찬 물은 피하고, 그릇에 물을 받아 놓은 채 살살 씻어내야 한다. 물기가 빠지면 이번엔 반죽. 반죽 역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깨끗 송이에 소금 간한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입혀 찌는 방법과 물에 밀가루를 풀어 풀죽을 만든 다음 발라 바로 햇볕에 너는 방법이 있다. 소금 간이 어렵다 싶으면 양념이 돼 있는 튀김가루를 써도 좋다. 반죽은 주르륵 흐르게 해야 바르고 편하고 뭉치지 않는다. 가루를 뿌려 찌내는 방식 역시 곱게 뿌려야 가

씻어 물뻘 들깨 송이에 소금 간한 밀가루 곱게 뿌려 찌 말리면 완성



루가 못쳐 있지 않으니 주의한다. 그렇게 만든 것들은 하루나 이틀, 햇볕에 바짝 마르면 완성인데 밀가루 맛이 적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반죽을 입혀 말려도 좋다. 간혹 '씨로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초록 꽃송이까지 먹는 일이나 영양적으로 이적이라 여긴다. 들깨 꽃송이가 구하기 어렵다 싶은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끝물 고추 사다가 '고추 부각'을 만들어도 좋다. 방법은 소금 넣고 찹쌀풀을 섞고 고추에 바르고 가을볕에 하루나 이틀 바짝 말리기만 하면 된다. 다 마르면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끈끈 밀봉했다가 살짝 튀겨 먹거나 기름 두른 팬에 볶아 먹는 데 입맛에 따라 설탕을 뿌려 볶아도 좋다.

가을 아침, 들깨 송이를 찌느라 분주하다. 온 집 안에 갇힌 향이 도는가 싶더니 살짝 들깨향도 난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다. 모를지기가 맛이란 이런 게 아닐까? 먹는 사람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재료를 구하고 '건강한 맛'을 먹고 싶은 내 마음이 조미료로 들어가 탄생한 맛.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피우는 음악과 같다.' 이탈리아 속담이다. 인스턴트 식품에서 찾을 수 없는 맛이다. 그래서 부각 만들기가 즐겁다. 그리고 맛있다. /담양역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28일 오후 화순읍에서 송기진 행장, 홍이식 화순군수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화순지점 이전식 행사를 갖고 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 화순지점 이전 '새출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8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홍이식 화순군수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화순지점 이전식 행사를 가졌다.

사를 가졌다.

KJB 광주은행 화순지점은 1990년 개점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영업점 노후화 등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현 영업점으로 새 단장해 이전하게 됐다. 새로 이전한 광

주은행 화순지점은 인근에 다양한 상업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어 이 지역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환율 10원 오를때 기업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천억 ↑ 포스코 1천억 ↓

최근 급등하는 환율에 삼성전자와 POSCO가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두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수천억원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국내 대표 수출기업인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에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POSCO는 수입 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전자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에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POSCO는 수입 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의 분석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증가하고 POSCO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상승 이후 단계적으로 하락할 때가 수익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 의견도 있다.

같은 증권사 박형중 투자전략팀장은 "IT 업종이 환율 민감도가 높아 환율이 오르면 유리하다. 다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위로 치솟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점진적으로 내려올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연필뉴스

삼겹살 가격 안정세로

두달새 30% 하락...100g에 1580원

구제역 여파와 휴가철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삼겹살 가격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산물품질관리원의 도매시장 기간별 경락가격에 따르면 호남권 도매시장의 돼지(탕박) 1+ 등급 지역 가격은 kg당 4462원으로 구제역 여파로 돼지가 '귀하던' 지난 5월 초에 7000원대의 가격에 비하면 3000원 가량이 내려왔다.

돼지고기 가격은 4월부터 6000원대를 기록, 6월 7600원대까지 치솟으며 휴가철인 7~8월까지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를 오르내렸으나 9월 중순 들어 5000원 초반 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삼겹살 소매 가격을 내리거나 특별판매를 통해 삼겹살 수요를 늘리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국내 양돈농가에서 확보

한 삼겹살 150아를 29일부터 100g에 1580원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격은 이마트를 기준으로 앞서 2380원까지 올랐던 7월 말과 비교하면 30%가량 하락한 수준으로, 삼겹살은 휴가철이 시작된 6월초부터 휴가가 절정에 이른 7월 하순까지 2380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초에 1880원 수준을 지켰었다.

롯데슈퍼도 제주도에 운영 중인 전용농장에서 확보한 삼겹살을 28일부터 일주일 간 100g에 1790원씩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구제역과 휴가철 수요로 올랐던 삼겹살 가격이 이달 들어 평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계약 생산된 물량 등이 풀리면 예년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 줄고 수출 늘고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수출 호조가 지속하고 소비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생산은 광주지역의 전자부품(-22.9%) 부진과 자동차 증가 폭 축소(26.1%→-8.4%)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7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냉방용품 및 캠핑용품 등의 매출 호조가 힘입어 전달의 -0.3%에서 +2.4% 증가로 전환했다.

8월 중 수출은 자동차(24.5%) 등의 호조로 전달의 19.2% 증가에서 54.4%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7월 중 광주·전남의 건축 착공면적은 광주지역(+71.6%→+122.8%)이 주가용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전남지역(+29.5%→+4.7%)은 축소됐다. /임동률기자 exian@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호사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 머리 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SBS, MBC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현대카드, 금호생명, 마이모 (남산빌딩 409호)

꿈과 열정으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자율형 사립고

광양제철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

연제: 2011. 10. 8(토) 10:00~12:00

장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광산구 소촌동) 강당 1층 중강당

- 공립고 수준의 수업료(타 자사고의 1/3)
- 대학수준의 도서관
- 개인별 지정 좌석제 열람실
- 중입점중식 냉난방 및 온수시설
- 튼튼한 POSCO 교육재단의 지원
- 셋별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금
- 216명 수용 최신키속사와 706석 대규모 식당
- SKY 대학 및 의치현대의 입시 광주·전남 최고의 성과
- 진로의 날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
- 수능 향상 30개 우수학교에 선정 (2011. 7.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 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심화수업
- 심층면접, 논·구술, UP연공, 개인별 D/B 상담지도
- 지구학습(개인별 좌석제, 교사 상시지도)
- 창체활동 활성화, 학교 인증제 실시
- 각종 경시대회 지도

본고는 전기 고등학교로 불합격시 후기 고등학교(일반 공립고,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고)에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고로 갈까? 자사고로 갈까? 아니면 특목고로 갈까? 고민되십니까? 그 고민을 광양제철고 입학설명회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문의: 입학관리본부 061-798-1110, 1111